

4. 과 수

- 사과 꽃눈 분화율 조사결과 ‘후지’ 59%, ‘홍로’ 73%로 평년대비 ‘후지’는 4.3% 낮았고, ‘홍로’는 7.4% 높았다.
- 지난해 9월 이후 비가 많이 내려 양분 축적이 어려운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꽃눈 분화율은 평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, 지난해 열매가 많이 달리거나 성숙기 잎이 많이 떨어진 과수원에서는 꽃눈 분화율이 낮았습니다.
- 사과 가지치기 전 꽃눈 분화율을 확인하도록 하며 분화율이 60~65% 정도면 평년처럼 가지치기를 하면 되고, 65% 이상으로 꽃눈 분화율이 높을 시에는 열매가지들을 많이 잘라내어야 하지만 해마다 3~4월 저온 피해로 꽃눈에 피해가 오니 경과를 지켜보고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.
- 과수 동해 예방을 위해 대목 및 주간부를 지면에서 1m 방한 조치를 취하는데 두꺼운 부직포, 벚짚, 방수 보온재, 신문지(15겹이상) 등 보온성 높은 피복재를 이용한다.

5. 축 산

- 축사를 항상 깨끗이 하고,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환풍기, 보온등, 온풍기 등 축사 전기설비 관리 철저히 화재 예방을 해야 한다.
- 축사 환경온도가 적정온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체열 유지를 위해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사료효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축사 내 적절한 환경을 유지한다.